

시편 묵상 20
(9/14/2023, 목)

찬양: 354(394)(주를 앙모하는 자)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18:4-34(4-6; 11-13; 18-27; 32-34)

말씀에 대한 이해: 다윗은 시편 18 편 서두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다양한 상징물을 통하여 드러내고 묘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환난 중에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 다윗은 4-5 절에서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했음을 언급하면서 그 환난 중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했다. 시 18:6 -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반응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 곤고함, 외로움, 영육의 각종 울무 속에 묶인 것과 같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움직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묘사했다. 시 18:7, 9, 11-12, 14 -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 . .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 . .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뻗뻗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뻗뻗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 . .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다윗에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 극장과 같은 곳이었다. 다윗을 압도하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과 손의 역사가 들어 있었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자기 한 개인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성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윗 자신의 의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시 18:18 -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게 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은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함으로 다윗의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능동적으로 임하시고 도와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

3)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 18:19 -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은 고난과 핍박 등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과 자유함을 상징한다. 육신적 삶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문제, 질병, 마음의 고통, 틀어진 관계, 악한 영들의 공격 등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 같으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사슬에 묶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영적 해방의 역사이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원한 파멸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도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다. **사 61:1 -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 때 당하는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속박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얻게 하신다.

4)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시 18:20, 24 -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악인들과 달리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분명히 믿었다.

진정한 복과 승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원리를 따를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를 때 얻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 불안함,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사실 어떤 때에는 실제로 손해를 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의 관심은 손해를 보나 그렇지 않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넘어 궁극적인 복과 승리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 설사 이 땅에서 주의 법도 대로 행하다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24-26 절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시 18:24-26 -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의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한다. 사람은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고 어떻게든 주의 법도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정직과 성실과 정결을 지키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육의 승리를 확신했다. **시 18:32-34 - 32.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암사슴 발”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암사슴의 발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며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피했음을 나타냈다. “**늦 활을 당기도다**”라는 표현을 원문에 충실하게 읽으면, ‘**나의 두 팔에 의해 늦 활이 꺾였다**’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울 때 적들의 늦 활이 꺾이고 부러짐으로 그들의 능력이 무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주님으로 인해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며,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복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경험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안진(대만), 정요엘, 채희철(미얀마), 정후란시스(중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지진과 홍수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